

# 부정소 ‘안’의 문법 단위 설정에 대한 소고

-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형태소인 부정소 ‘안’ -

박재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부사 ‘아니’와 부정소 ‘안’의 차이
- III. 부정소 ‘안’의 의존 형태소적인 성격
- IV. 단형 부정문의 형성과 제약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소 ‘안’의 문법 단위가 자립 형태소인 단어가 아니라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 형태소임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부정소 ‘안’이 의존 형태소임을 밝혀 부정소 ‘안’을 부사로 설정함으로써 그 동안 설명되지 못했던 (i)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 특징들과 (ii)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약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정소 ‘안’을 부사 ‘아니’의 준말로서 부사로 분류하고 부사인 ‘안’이 용언 앞에 통사적으로 위치하여 단형 부정문이 형성된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i)부사 ‘아니’와 부정소 ‘안’의 역할의 차이와 (ii)자립 형태소와는 차별화되는 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 성격을 들어 부정소 ‘안’의 문법 단위를 자립 형태소인 단어가 아니라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가 용언형 어근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부정소 ‘안’이 용언형 어근인 어기와 결합하는 접사적 성격이 강한 의존형태소라는 사실을 통해 선행 연구에서 해명하지 못했던 단형 부정문의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BK21+ 동아시아융합사업단 연구교수

형성 제약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 단형 부정문, 부정소 ‘안’, 부사 ‘아니’, 의존 형태소, 접사, 어기, 용언형 어근

## I. 머리말

본 연구는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소 ‘안’의 문법 단위가 자립 형태소인 단어가 아니라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 형태소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약을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1999)에서는 부정소 ‘안’을 (i)부사 ‘아니’의 준말로, (ii)품사는 부사 ‘아니’와 동일한 부사로, (iii)역할은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문법소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문법서나 학교 문법에서도 표준 국어 대사전과 마찬가지로 부정소 ‘안’을 자립 형태소인 부사로 분류하고 있고 아래 (1)과 같이 부사인 ‘아니/안’이 용언 앞에 위치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 영만이는 오늘 아침을  $\wedge$  먹은 것이 분명하다.

안/?아니

하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구현정 2008, 이한규 2012 등)는 현대 국어에서 부사 ‘아니’는 부정소 ‘안’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사 ‘아니’는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문법소의 역할보다는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담화 표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문법소의 역할은 부정소 ‘안’이 전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

제로 위에 제시된 (1)에서처럼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때 부정소 ‘안’ 대신에 부사 ‘아니’가 쓰이게 되면 문장이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근래에 들어 부사 ‘아니’의 주된 역할에 변동이 있었고 이 같은 변동으로 인해서 부사 ‘아니’의 역할과 부정소 ‘안’의 역할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현대 국어에서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소 ‘안’과 담화 표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 ‘아니’가 서로 다른 문법적 층위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어형의 문법 단위도 달라졌다고 본다. 즉 부사 ‘아니’는 자립 형태소인 단어로 분류되지만, 부정소 ‘안’은 자립 형태소가 아닌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 해명하지 못했던 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단형 부정문의 형성 제약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하겠다.

2장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부사 ‘아니’의 역할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볼 것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부정소 ‘안’과 부사 ‘아니’가 동일한 문법 단위나 품사로 분류될 수 없음을 확인할 것이다. 3장에서는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인 특징을 분석하여 부정소 ‘안’이 접사적 성격이 강한 의존 형태소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4장에서는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의 어기가 용언형 어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Ⅱ. 부사 ‘아니’와 부정소 ‘안’의 차이

표준 국어 대사전(1999)은 부정소 ‘안’을 “부정이나 반대를 나타내는 말인 부사 ‘아니’의 준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 화자들은 부정소 ‘안’

의 역할과 품사도 부사 ‘아니’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남기심·고영근(1985), 남기심(2001) 등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부정소 ‘안’을 ‘아니’와 같은 부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근거도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사 ‘아니’의 역할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구현정 2008, 이한규 2012, 안주호·김영란 2013 등)를 살펴보면, 부정소 ‘안’이 과연 부사 ‘아니’와 동일한 문법적 층위<sup>1)</sup>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부정소 ‘안’의 형태가 ‘아니’로부터 도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구현정(2008: 3-4)에 따르면 ‘아니’의 형태는 15세기부터 존재하였고 1960년대까지도 용언 앞에 위치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문법소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2)의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960년대까지도 ‘아니’는 현대 국어의 ‘안’과 마찬가지로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2) 가.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씨 (용비어천가 2)

나. 우리 이 몰들히 물 아니 머것더니 (번역노걸대 상 31)

다. 왕과 공주의 마음은 다섯 해 동안 풍진, 안 근심, 바깥 걱정에 시똥한 피로를 아니 느낄 수 없었다. (박종화 소설, 1940)

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아니 노지는 못 하리라. (김영일 작사, 1960초)

(구현정 2008:3-4)

1) 문법 층위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등과 같이 언어 표현이 실현되는 개별 영역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부사 ‘아니’가 담화표지로서 “담화적 상황”에서 문법적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반면에 부정소 ‘안’은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문법소로서 문장 차원에서 그 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부사 ‘아니’와 부정소 ‘안’의 역할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문법 층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부정소 ‘안’의 형태는 15세기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이지영(2008), 박상수(2011)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오늘날 부정소 ‘안’과 음운적으로 동일한 형태인 ‘안’이 문장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당시에 쓰인 ‘안’은 음운적으로는 현대 국어의 부정소 ‘안’과 동일하지만 그 역할에는 차이가 있었다. ‘안’은 장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 서술어인 ‘아니<sup>ㅎ</sup>-’의 형태가 ‘안<sup>ㅎ</sup>-’의 형태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오늘날의 부정소 ‘안’과 음운적으로만 동일하지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안’이 독립적으로 용언 앞에 나타나면서 19세기 이후에는 ‘아니’와 ‘안’이 함께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문법소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라)에서 확인되듯이 1960년대까지 지속된 듯싶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 부사 ‘아니’의 역할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구현정(2008), 이한규 (2012), 안주호·김영란(2013) 등의 주장이다. 즉 부사 ‘아니’의 주요한 역할이던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역할은 급격히 축소되고, 축약형인 ‘안’이 그 역할을 전담하게 되었으며 부사 ‘아니’는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절에서 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현대 국어에서 부정소 ‘안’이 용언 앞에 위치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sup>2)</sup> 구현정(2008), 이한규 (2012), 안주호·김영란(2013)에 따르면, 현대 국어에서 부사 ‘아니’는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제시

2) 54,852 어절로 구성된 세종 구어 말뭉치 가운데 전사 말뭉치를 조사한 구현정(2008: 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사 ‘아니’가 삽입되어 단형 부정문이 형성된 예는 단 한 건이었다고 한다. 필자도 인터넷과 세종 구어 말뭉치를 조사한 결과 부사 ‘아니’가 삽입되어 단형 부정문을 형성한 예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한 예문을 통해 현대 국어에서 부사 ‘아니’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 (3) 가. 그리고 많은 성의학자들이 저의 이러한 견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아니/\*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성의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읽었습니다. (구현정 2008:6)
- 나. 이 저 머리 꺾으신 거 보십시오 오차가 있으시겠나. 네 어 오차가 전혀 아니/\*안 근데 한번 이남이씨 한번 해 보십시오. 재로 재로 재로… (이한규 2012:165)
- 다. 아니/\*안, 이게 누구야? (안주호·김영란 2013:165)

구현정(2008:6)은 (3가)에서 ‘아니’는 앞 말의 잘못된 내용을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한규(2012:165)는 (3나)에서 ‘아니’는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안주호·김영란(2013:165)은 (3다)에서 ‘아니’는 화자의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쓰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3)의 예문에 제시된 부사 ‘아니’는 담화에서 화자의 인식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표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소 ‘안’의 역할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다.

이러한 역할의 차이뿐만 아니라, 부사 ‘아니’는 또한 몇 가지 점에서 부정소 ‘안’과 명확히 구분된다. 첫째, 부사 ‘아니’는 부정소 ‘안’으로 교체하여 쓰일 수 없고, 둘째, 부정소 ‘안’과는 달리 부사 ‘아니’가 문장에 삽입되어도 단형 부정문이 반드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셋째, 부사 ‘아니’는 부정소 ‘안’과는 달리 그 통사적 위치가 용언 앞으로 제한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선행 연구의 성과뿐만 아니라 ‘아니’와 ‘안’의 교체 여부, ‘아니’와 ‘안’의 단형 부정문의 형성 여부, ‘아니’와 ‘안’의 실현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현대 국어에서 부사 ‘아니’와 부정소 ‘안’을 동일한 역할, 의미를 지닌 어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사 ‘아니’와 그 준말인 부정소 ‘안’ 사이에 역할 변동이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준말은 본말의 음절수가 축약되어 형성된 어형으로 본말의 의미와 역할을 그대로 따르는 준말과 그렇지 않은 준말로 구분된다.<sup>3)</sup> 따라서 국어에서 본말과 축약형 사이에 문법적 역할이 달라지는 현상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부사 ‘조금’과 축약형인 ‘좀’ 사이에도 문법적 역할 변동이 확인된다. 부사 ‘조금’은 문장에서 정도 부사로 주로 쓰이지만 축약형인 ‘좀’은 정도 부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본말인 ‘조금’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문법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목정수 2001, Bak 2011). 일례로 준말인 ‘좀’은 선행하는 명사와 결합하여 ‘한정 또는 부분’의 의미를 명사에 더하는 보조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역할은 본말인 정도 부사 ‘조금’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sup>4)</sup> 본고에서는 본말과 준말 사이에 나타나는 역할 변동이 본말인 부사 ‘아니’와 준말인 ‘안’ 사이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 논의된 부정소 ‘안’과 부사 ‘아니’의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통시적으로 부정소 ‘안’의 형태는 ‘아니’로부터 생성되었으며 최근까지 ‘안’과 ‘아니’ 모두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문법소의

3) 정희창(2008: 83)에 따르면 준말은 본말의 품사와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본말인 ‘그러면’의 준말은 ‘그럼’이다. ‘그럼(=그러면) 조금 이따 봅시다’의 문장에서는 준말이 본말과 동일한 의미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럼(≠/ 그러면) 그렇고 말고’에서는 준말이 감탄사로 쓰여 본말과는 다른 의미와 기능을 수행한다.

4) ‘좀’은 ‘조금’의 준말이지만, ‘철수야, 택시 좀/\*조금 불러줘.’와 같은 문장에서는 서로 교체하여 쓰일 수 없다. 이 문장에서 ‘좀’은 더 이상 ‘조금’이라는 정도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좀’의 이 같은 역할에 대해 목정수(2001)는 ‘좀이 한정 조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고, Bak(2011)에서는 ‘좀’이 부분 조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근래에 부사 ‘아니’의 역할에 변동이 일어났고 부정소 ‘안’의 역할과 차이가 나타나게 된 듯하다. 즉 현대 국어에서는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문법소의 역할은 전적으로 부정소 ‘안’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부사 ‘아니’와 부정소 ‘안’의 교체도 허락되지 않게 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이처럼 부사 ‘아니’와 부정소 ‘안’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교체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문법서에 정의된 대로 부정소 ‘안’을 ‘아니’와 같은 부사로 분류하고 단형 부정문이 부사 ‘아니’처럼 부정소 ‘안’이 통사적으로 삽입되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소 ‘안’이 속하는 문법 단위와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을 새로운 방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 Ⅲ. 부정소 ‘안’의 의존 형태소적인 성격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 국어에서 ‘아니’와 ‘안’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문법서나 사전에서는 부정소 ‘안’을 ‘아니’와 같은 부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부정소 ‘안’을 자립 형태소인 부사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대신에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 1. 부정소 ‘안’의 실현 위치

일반적인 부사들과 부정소 ‘안’이 변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부사들이 문

장에 위치하는 자리와 부정소 ‘안’이 문장에서 위치가 자리의 차이이다. 즉 일반적인 부사와는 달리 부정소 ‘안’은 항상 서술어인 용언 앞으로 그 실현 위치가 고정되며 서술어 앞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위치할 수 없다.<sup>5)</sup> 아래 (4)의 예문을 통해 부정소 ‘안’의 실현 위치에 대해 살펴보자.

(4) 가. 어머니께서 철수에게 오늘 도시락을 주셨다.

나. (\*안) 어머니께서 (\*안)철수에게 (\*안)오늘 (\*안)도시락을 안 주셨다  
(\*안).

다. 영수는 (?가장) 철수를 가장 좋아한다 (가장).

(박재희 · 박정규 2012:115)

현행 국어 문법서나 사전에서 부정소 ‘안’을 부사로 분류한 이유 중 하나는 부정소 ‘안’의 실현 위치가 일반적인 부사와 마찬가지로 서술어인 용언 앞으로 고정된다는 사실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다. 유형론의 관점에서 (Tallerman 1998:103-112) 보자면 한국어는 피수식어인 핵(head)이 수식어 다음에 위치하는 “핵-말 언어(head-final language)”에 속한다. 따라서 핵-말 언어에 속하는 한국어에서 용언 수식어인 부사는 핵인 용언 앞에 위치하게 된다. (4다)에서 부사인 ‘가장’이 생성되는 위치를 동사 ‘좋아하다’ 앞이라고 분석하는 이유도 수식어인 ‘가장’이 피수식어인 동사 ‘좋아하다’를 수식하기 위해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핵-말 언어의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부정소 ‘안’의 위

5) ‘명사+이다(서술격 조사)’의 형태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소 ‘안’은 ‘명사+이다’형의 서술어 앞에는 위치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정소 ‘안’이 서술어 앞에 위치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때 서술어는 주로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로 한정된다. 또한 부정소 ‘안’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없는 용언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치가 용언 앞으로 고정되며 후행하는 용언을 주로 부정(수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기존 논의와 문법서에서처럼 부정소 ‘안’을 부사로 분류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성분 부사 ‘매우, 꽤, 잘, 가장’ 등과 부정소 ‘안’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는 통사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때때로 이들 성분 부사는 용언 앞뿐만 아니라 문장의 다른 곳에 위치하기도 한다. (4다)와 같이 부사 ‘가장’은 화용적인(pragmatic) 이유로 용언에 후행하여 위치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들 부사가 용언 앞에서 생성된 후 문장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부정소 ‘안’은 성분 부사에서 보이는 이 같은 통사적 이동이 허락되지 않는다. 부정소 ‘안’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용언에 후행하거나 다른 문장 성분 앞에 위치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부정소 ‘안’과 성분 부사들 간에는 통사적인 실현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성분 부사인 ‘매우, 꽤, 잘, 가장’ 등의 통사적 실현 양상과 부정소 ‘안’의 그것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만약 기존 문법서를 따라 부정소 ‘안’을 부사로 다루려고 한다면, 부정소 ‘안’은 일반적인 성분 부사와는 통사적으로 차별되는 예외적인 부사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sup>6)</sup> 따라서 기존 문법서나 학교 문법에서처럼 부정소 ‘안’을 부사에 포함시켜 예외적인 부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부정소 ‘안’의 통사적 실현 양상을 고려하여 부정소 ‘안’을 부사가 아닌 다른 품사 또는 다른 문법 단

6) 본고에서는 부정소 ‘안’의 음운적 특징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부정소 ‘안’은 성분 부사인 ‘매우, 꽤, 잘, 가장’ 등과는 달리 주로 후행하는 용언과 하나의 음운 단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반적인 발화에서는 부정소 ‘안’과 후행하는 용언 사이에는 음운론적 휴지(pause)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부정소 ‘안’과 후행하는 용언이 하나의 음운 단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부정소 ‘안’을 부사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부정소 ‘안’은 어떤 품사 또는 문법 단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국어에서 부정소 ‘안’과 같이 부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실현 위치가 용언 앞으로 고정되고 통사적 이동도 허락되지 않는 문법소는 용언과 결합하는 접두사가 있다. 예를 들어 접두사 ‘옛-’과 동사 ‘보다’의 결합으로 형성된 동사 ‘옛-보다’에서 접두사 ‘옛-’은 항상 후행하는 어기인 동사 ‘보다’ 앞에 위치하며 통사적인 이동도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부정소 ‘안’의 실현 양상을 고려하여 용언을 어기로 한 접두사로 분류한다면, 부정소 ‘안’의 통사적 양상이 일반적인 부사들의 그것과 다른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처럼 부정소 ‘안’의 문법 범주를 의존 형태소인 접사로 규정한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국어 문법서와 학교 문법에서 부정소 ‘안’을 자립성을 지닌 단어로 규정하여 부사로 정의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부정소 ‘안’의 문법 단위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정소 ‘안’을 자립성을 지닌 단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부정소 ‘안’의 자립성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해 보겠다.

## 2. 부정소 ‘안’의 자립성 여부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정소 ‘안’의 통사적 실현 양상과 이동의 제약은 부사 ‘아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사들과도 차별화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번 소절에서는 부정소 ‘안’의 문법 단위를 의존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정소 ‘안’의 자립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정소 ‘안’의 자립성 여부는 박정규(1996)에서 이미 자세하게 논의된 바 있다. 박정규(1996)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성분 부사는 (5나)에서처럼 보조사 ‘-은/는’의 도움을 받아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부정소 ‘안’은 (5라)에서처럼 보조사 ‘-은/는’의 도움을 받더라도 문장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5라)에서처럼 부사 ‘아니’는 자립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부정소 ‘안’은 이와 같이 쓰일 수가 없는 점을 들어 부사 ‘아니’는 자립 형태소인 단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부정소 ‘안’은 자립 형태소로 분류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박정규(1996)의 지적을 따르면 부정소 ‘안’을 자립성을 지닌 단어인 부사로 정의할 어떤 특별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 (5) 가. 철수가 미국에 아주 갔니?  
 나. 아주는! ‘잠깐’ 갔지.  
 다. 철수가 밥을 안 먹었니?  
 라. 아니/\*안은! ‘조금’ 먹었지.

(박정규 1996:6)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쓰일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부정소 ‘안’을 자립 형태소인 단어로 인정하기 어려운 또 다른 근거는 부정소 ‘안’과 용언이 결합하여 형성된 구성이 통사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phrase)가 아니라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립 형태소인 부사와 용언의 결합은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구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처럼 독립된 두 단어인 부사와 용언의 결합으로 형성된 구에서는 부사에 ‘-도’와 같은

보조사가 결합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의존 형태소인 접사와 용언이 결합된 구성, 즉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는 어떤 보조사도 접사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도'와 같은 보조사가 용언 앞에 선행하는 문법 단위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라도 선행하는 문법 단위가 자립 형태소인지 의존 형태소인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래 (6)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보자.

- (6) 가. 철수가 빵을 [잘 먹]-는구나!/철수가 빵을 [잘도 먹]-는구나!  
 나. 철수가 빵을 [짓-뺨]는구나!/\*철수가 빵을 [짓도 뺨]-는구나!

(6가)에서 부사 '잘'은 용언 어간 '먹-'과 결합하여 구를 형성하였다. 이 때 부사 '잘'은 보조사인 '-도'와 결합하여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부사 '잘'과 용언 어간 '먹-'의 결합이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형성된 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사 '잘'은 자립성을 지닌 단어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6나)에서 접사 '짓-'과 용언 어간 '뺨-'이 결합하여 파생 용언이 형성되는 구성에서는 접사 '짓-'과 용언 어간 '뺨-' 사이에 보조사 '-도'가 삽입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접사 '짓-'과 용언 어간 '뺨-'의 결합이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형성된 구가 아니라 합성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소 '안'과 후행하는 용언 사이에서도 (6나)의 접사와 용언 어간의 결합과 같이 보조사가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아래 예문 (7)을 보자.

- (7) 철수가 빵을 [안]-먹는구나!/\*철수가 빵을 [안도 먹]-는구나!

(7)의 결과는 부정소 '안'과 용언 어간의 결합으로 형성된 구성이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형성된 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부정소 ‘안’의 자립성 여부에 관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부정소 ‘안’은 자립성을 지닌 단어가 아니라 접사와 같은 용언 어간에 의존적으로 결합하는 형태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부정소 ‘안’의 결합 제약

부정소 ‘안’을 부사로 분류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부정소 ‘안’과 결합하지 못하는 용언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문법서나 학교 문법에서는 부정소 ‘안’을 부사로 분류하고 (8)에서처럼 단형 부정문이 대당 긍정문의 용언 앞에 부사인 부정소 ‘안’이 통사적으로 삽입됨으로써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8) 가. 대당 긍정문: 영철이가 어제 백화점에서 옷을 샀다.

나. 단형 부정문: 영철이가 어제 백화점에서 옷을  $\wedge$  샀다.  
안

다. 단형 부정문의 형성 제약: \*너는 어째서 그 분을 안 본받느냐?

(남기심 · 고영근 1985:363)

그런데 (8나)와 같이 대당 긍정문에 부사인 부정소 ‘안’이 삽입됨으로써 단형 부정문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면, 국어의 모든 용언 앞에 부정소 ‘안’이 자유롭게 삽입되어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8다)에서처럼 실제 용언들과 부정소 ‘안’이 결합하는 형편을 보면, 부정소 ‘안’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없는 용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구종남(1993)에 따르면, 서정수(1983)가 조사한 2000 여개의 용언들 중에서 54%만이 부정소 ‘안’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있고, 46%는 부정소 ‘안’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8나)의 설명 방식으로는 54%에 해당하는 용언들이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46%에 해당하는 용언들이 왜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타당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같은 형편에 대해 남기심(2001:314-315)은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약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정소 ‘안’을 부사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면 (8다)와 같은 문장이 왜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단형 부정문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소 ‘안’과 후행하는 용언 사이의 제약을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과 어기 사이에 나타나는 제약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절에서 다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기존 문법서나 학교 문법에서는 부정소 ‘안’을 부사로 분류하였는데, 이처럼 부정소 ‘안’을 부사로 분류하게 되면 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본고는 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소 ‘안’의 문법 단위를 자립 형태소가 아닌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 형태소로 설정하게 되면, 부정소 ‘안’을 부사로 설정했을 때 설명하지 못했던 여러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먼저,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자립성과 관련된 특성이다. 부정소 ‘안’은 부사 ‘아니’와는 달리 자립적으로 문장에 쓰일 수 없는데 부정소 ‘안’을 부사가 아닌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게 되면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현행 문법서와 같이 부정소 ‘안’을 부사로 분류하면, (9)에서처럼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부정소

‘안’이 쓰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9) 가. 영숙: 철수가 밥을 먹었니?

나. 미영: \*안/아니

하지만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규정하면 (9가)의 ‘영숙’의 질문에 대한 ‘미영’의 답변으로 부정소 ‘안’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이유를 부정소 ‘안’이 자립 형태소인 부사가 아니라 문장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여야 하는 결정적 근거 이외에도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설정함에 따라 부정소 ‘안’의 특징을 설명하기 용이한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부정소 ‘안’의 실현 위치가 용언 앞으로 고정되며 이동이 허락되지 않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 부정소 ‘안’을 부사로 설정하게 되면 아래 (10)의 예문과 같이 부정소 ‘안’이 일반적인 부사와는 달리 통사적 이동이 허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부정소 ‘안’을 특수한 부사로 설정하여야만 한다.

(10) (\*안) 철수는 (\*안) 밥을 (안) 먹었어 (\*안)<sup>7)</sup>.

---

7)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철수가 밥을 먹었어 아니’와 같은 문장에서도 부사 ‘아니’가 후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부정소 ‘안’과 마찬가지로 ‘아니’도 문장에 후치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부정소 ‘안’의 위치가 용언 앞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이 의존 형태소로 분류해야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사와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심사위원이 지적한 문장도 ‘먹었어’와 ‘아니’ 사이에 휴지를 두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문과 비문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아니’가 용언 다음으로 후치하였다고 하여 전적으로 비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부정소 ‘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언 다음에 후치할 수 없음을 상기할 때, 의존 형태소와 유사한 특성

하지만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설정하게 되면 (10)의 예문에서 부정소 ‘안’이 용언 앞을 제외한 문장의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즉 부정소 ‘안’이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기인 용언과 분리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부정소 ‘안’의 위치가 용언 앞으로 고정된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소 ‘안’이 ‘-도’와 같은 보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이유도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분류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문법서와 같이 부정소 ‘안’을 부사로 분류하게 되면, (11)에서처럼 부정소 ‘안’이 보조사 ‘-도’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부정소 ‘안’의 특이성 정도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11) \*철수는 밥을 안도 먹었다.

하지만 부정소 ‘안’을 어기와 결합하는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게 되면, (11)의 예문이 비문인 이유를 해명하기가 용이하다. 즉 의존 형태소와 어기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때, 의존 형태소가 어떤 보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다.<sup>8)</sup> 따라서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도 어기로 여겨지는 용언과 결합할 때 어떤 보조사와도 결합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있고 이 같은 설명은 국어 문법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보자면 좀 더 보편타당한 설명이라고

---

을 보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8)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부사 ‘아니, 정말’ 등도 보조사와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부정소 ‘안’과 보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분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사위원의 지적은 타당하나 본고와 같이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규정하게 되면 국어 문법 전체 체계를 고려할 때 부정소 ‘안’이 보조사와의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명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정소 ‘안’을 부사가 아닌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게 되면 기존 문법서에서 예외로 설정하였던 부정소 ‘안’의 특징들을 다른 부가적인 설명 없이도 국어 문법의 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정소 ‘안’의 문법 단위를 자립 형태소인 단어가 아닌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본고에서는 부정소 ‘안’을 접두사의 역할을 하는 의존 형태소로서, 자립 형태소에서 접사로 이행되어 가는 ‘문법화’ 단계에 있는 요소로 설정하고자 한다.

#### IV. 단형 부정문의 형성과 제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용언들은 부정소 ‘안’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하는데 부정소 ‘안’을 부사로 분류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제약의 존재 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절에서는 부정소 ‘안’이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 형태소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없는 용언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다.

##### 1.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

박정규(1996), Kim(2000), 박재희·박정규(2012)에서는 부정소 ‘안’이 의존 형태소인 접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지만,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설정할 때,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가 무엇이며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부정소 ‘안’의 어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i)기존 문법서나 학교 문법과는 달리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설정하여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ii)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약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자.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때 부정소 ‘안’이 항상 용언 앞에만 위치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래 (12)와 같이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를 후행하는 용언 어간이라고 우선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12) 철수는 그 책을 [안 읽]-었다.

<의존 형태소>    <어기>

만약 (12)과 같이 용언 어간이 부정소 ‘안’의 어기라고 한다면, 부정소 ‘안’은 모든 용언 어간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래 (13)의 예문에서처럼 부정소 ‘안’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용언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언 어간을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로 파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13)의 예문들을 분석하여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13) 가. 철수는 밥을 [안 먹]-었다./영희가 [안 예쁘]-다./ 영희의 옷소매를 [안 잡]-았다.

나. 철수는 영희에게 전화(를) [안 하]-었다.

다. \*철수는 영희에게 [안 전화하]-었다.

라. \*[안 신사답]-다, \*[안 과다하]-다, \*[안 멋지]-다 등

(13)에서 대괄호는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과 어기로 기대되는 용언의 어간을 함께 표시한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은 용언의 어간에 해당된다. (13가)에서 [안 먹]은 ‘안’과 용언 어간 ‘먹-’이 결합된 구성으로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13나)에서 [안 하]는 ‘안’이 ‘하-’와 결합한 구성으로 이 구성도 문법적이다. 반면, (13다)에서 \*[안 전화하]는 ‘안’과 용언의 어간 ‘전화하-’가 결합된 구성으로 이 구성은 비문법적이다. 또한 (13라)에서 \*[안 신사답], \*[안 과다하], \*[안 멋지]는 ‘안’이 용언의 어간인 ‘신사답-’, ‘과다하-’, ‘멋지-’와 결합된 구성으로 이들 구성도 역시 문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13)에 제시된 예문들의 문법의 적법성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13)에 제시된 용언 어간의 어근(root)을 살펴보고자 한다.<sup>9)</sup> (13가)의 예문에 제시된 용언들인 ‘먹-, 예쁘-, 잡-’ 등은 모두 단일어로 어간 자체가 곧 어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3다)와 (13라)에 제시된 용언들은 ‘전화하-,

9)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도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13가)의 용언 어간들과는 달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13다)와 (13라)와 같은 용언 어간들은 주로 파생이나 합성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남기심·고영근(1985)에서 부정소 ‘안’을 부사인 단어로 설정했기 때문에 부정소 ‘안’과 연결되는 대상을 용언 어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대상(어기)을 용언 어간이 아니라 어근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부정소 ‘안’을 부사가 아닌 의존 형태소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신사답-, 과다하-, 멋지-’ 등은 파생어로 이들 용언 어간은 어근인 ‘√전화’, ‘√신사’, ‘√과다’, ‘√멋’ 등과 파생접사 ‘-답-, -하-, -지-’ 등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13가)의 예문에 제시된 용언들의 어간은 어근과 동일한 반면에 (13다)와 (13라)의 예문에 제시된 용언들의 어간은 어근과 접사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3가)의 예문에 제시된 용언들처럼 특별한 형태소의 첨가 없이 어근 자체가 용언 어간을 형성할 수 있는 어근을 “용언형 어근”으로 부르고, (13다)와 (13라)의 예문에 제시된 용언들처럼 용언 어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근에 접사가 반드시 첨가되어야 하는 어근을 “비용언형 어근”이라고 부르려 한다. 특히 특별한 접사의 도움 없이 어근 자체로 체언을 형성할 수 있는 어근(예: 전화, 신사, 멋 등)을 “체언형 어근”으로 부르도록 하겠다.<sup>10)</sup>

위에 정의한 어근을 고려하면 이제 (13)의 예문에서 어떤 환경에서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없는지

10) 어근을 용언형 어근과 비용언형 어근 또는 체언형 어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이들의 단어 형성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체언형 어근인 ‘√전화’와 용언형 어근인 ‘√뛰’가 명사로 실현될 때와 동사로 실현될 때의 어떤 차이가 보이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동사 ‘전화하다’와 ‘뛰다’의 명사형은 각각 ‘전화, 전화하기, 전화함’과 ‘뛰기 또는 뛸’이다. 어근이 실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최소 단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어근을 각각 ‘√전화’와 ‘√뛰’로 규정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들 어근으로부터 동사와 명사가 형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들 어근이 동사와 명사로 파생되는 과정을 떠올려 보자. 체언형 어근인 ‘√전화’는 명사적인 형태소의 첨가 없이 명사인 ‘전화’로 실현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체언형 어근인 ‘√전화’가 동사로 실현될 때, 어근 ‘√전화’는 그 자체로 동사로 쓰일 수 없고(\*전화-다) 반드시 접사인 ‘하’와 결합하여 동사 ‘전화하-’로 실현된다. 한편, 용언형 어근인 ‘√뛰’는 체언형 어근인 ‘√전화’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용언형 어근인 ‘√뛰’는 명사적인 형태소의 도움 없이 동사 (뛰-다)로 실현될 수 있지만, 명사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사적인 형태소인 ‘-(으)ㄴ/-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어근의 단어 형성과정을 따져보면, 어근을 용언형 어근과 체언형 어근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과약할 수 있다. 부정소 ‘안’과 용언형 어근인 ‘√떡-, √예쁘-, √잡-’ 등이 결합한 경우인 (13가)는 문법적이지만, 부정소 ‘안’이 비용언형 어근 또는 체언형 어근인 ‘√전화’, ‘√신사’, ‘√과다’, ‘√땃’ 등과 결합한 경우인 (13다)와 (13라)는 비문법적이다. 따라서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를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어근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13가)에서는 부정소 ‘안’이 용언형 어근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였기 때문에 문법적이고, (13다)와 (13라)에서는 부정소 ‘안’이 비용언성 어근 또는 체언형 어근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처럼 (i) 부정소 ‘안’을 의존 형태소로 분석하고 (ii) 어기를 용언 어간이 아니라 용언형 어근으로 분석하게 되면, 단형 부정문의 형성과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약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를 용언형 어근으로 분석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예는 (13나)이다. (13나)에서 부정소 ‘안’은 접사인 ‘-하-’와 결합한 형태로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접사 ‘-하-’를 용언형 어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sup>11)</sup> 물론 ‘-하-’가 용언형 어근인지 접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본고와 같이 ‘-하-’를 용언형 어근으로 분류한다면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이 용언형 어근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한다는 본고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11) 허철규(2001), 최형강(2008, 2009)에 따르면, ‘전화(를) 안 하-’ 구성에서 부정소 ‘안’이 어근과 접사 ‘하-’ 사이에 삽입될 수 있는 이유를 접사 ‘하-’의 자립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접사 ‘하-’가 자립 형태소이기 때문에 선행하는 어근과 분리가 허락되고 따라서 어근과 ‘하-’ 사이에 부정소 ‘안’이 첨가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 2.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약

이번 소절에서는 부정소 ‘안’이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 형태소이며,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가 용언형 어근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약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용언 ‘먹다, 예쁘다, 잡다’ 등은 부정소 ‘안’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이 용언형 어근인 ‘√먹, √예쁘, √잡’ 등과 직접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아래 (14)는 단형 부정문이 형성되는 과정을 풀어 쓴 것이다.

(14) 가. 대당 긍정문: 철수는 밥을 먹-었다.

나. 단형 부정문: 철수는 밥을 [안 먹]-었다.

[안(의존 형태소)+√먹(어기: 용언형 어근)]

(14)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단형 부정문이 형성된다는 전제 하에 이제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자. 서정수(1983), 남기심·고영근(1985), 구종남(1993), 남기심(2001)에 따르면 부정소 ‘안’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용언들이 국어에는 다수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용언들 대부분이 파생 또는 합성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용언들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용언들 중에서 박재희·박정규(2012)에서 논의된 접두 파생 용언을 제외하고 접미 파생 용언을 중심으로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약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우선 부정소 ‘안’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없는 접미 파생 용언들을 정리해 보면 (15)와 같다.

(15)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접미 파생 용언>

가. 체언+접미사(스럽다, 답다, 룡다, 맞다, 되다, 차다, 지다, 찍다)

‘신사답다, 슬기롭다, 방정맞다, 수상찍다, 멋지다, 속되다...’,<sup>12)</sup>

나. 한자어(어근)+접미사 ‘하다’ <형용사><sup>13)</sup>

‘경솔하다, 고귀하다, 과다하다, 광활하다, 구차하다, 신중하다, 악하다, 정당하다, 지독하다, 창피하다...’<sup>14)</sup>

다. 한자어(어근 1음절) + 접미사 ‘하다’

‘고하다, 보하다, 사하다, 탐하다, 흥하다, 긴하다, 능하다, ...’<sup>15)</sup>

라. 고유어(어근)+접미사 ‘하다’

‘갑갑하다, 궁급하다, 납작하다, 부지런하다, 심심하다, 싱싱하다, 착하다, 차분하다, 축축하다 ...’<sup>16)</sup>

마. 부사성 어근+ 접미사 (하다, 거리다, 대다)

‘곱슬곱슬하다, 글썽거리다, 흔들거리다, 필력이다 ...’

(구종남 1993: 13-16)

그런데 접미 파생 용언이라고 하여 항상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구종남(1993)에 따르면 (15)에 제시된 접미 파생 용언들은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없지만, 각주(12)부터 (16)에 제시된 접미

12) 구종남(1993:13)에 따르면, ‘해롭다, 이롭다, 멋지다’ 등의 용언은 예외적으로 부정소 ‘안’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13) 구종남(1993:14)은 ‘한자어+하다’ 파생의 결과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자어+하다’가 형용사 일 때는 파생어로, ‘한자어+하다’가 동사 일 때를 합성어로 구분하였다.

14) 구종남(1993:14)에 따르면, ‘순진하다, 이상하다’는 단형 부정문의 형성에 있어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15) 구종남(1993:14)에 따르면, ‘갑하다, 금하다, 급하다, 권하다, 독하다, 당하다, 망하다, 박하다, 변하다...’ 등의 한자어 어근 1음절로 형성된 파생어는 단형 부정문의 형성에 있어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16) 구종남(1993:15)에 따르면, ‘가룩하다, 거룩하다, 고요하다, 골똥하다, 괄괄하다...’ 등의 파생 용언은 단형 부정문의 형성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파생 용언들은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구종남(1993)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접미 파생 용언이라고 하여 모두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접미 파생 용언들의 단형 부정문 형성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삼는다. 대신에 화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접미 파생 용언들의 단형 부정문 형성에 관한 문법적인 적법성을 판단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15)에 제시된 용언들부터 검토해 보자. (15)에 제시된 용언들은 체언, 한자어 어근, 부사성 어근과 같은 어기에 접미사 ‘-스럽-, -답-, -롭-, -하-, -거리-, -대-’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 용언들이다. 그런데 위에 제시된 어근들을 살펴보면, 체언형 어근을 포함해서 모두 비용언형 어근들이다. 본고의 제안에 따르면 (15)에 제시된 접미 파생 용언들이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5)에 제시된 어근들은 모두 비용언형 어근으로, 용언형 어근과만 결합할 수 있는 부정소 ‘안’의 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비용언형 어근은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과의 결합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15)에 제시된 접미 파생 용언들과 부정소 ‘안’의 결합은 화자들에게도 모두 비문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종남(1993)은 각주 (12)부터 (16)에 제시된 접미 파생 용언들은 부정소 ‘안’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의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하나인 ‘순진하다’를 통해 그 이유를 논의해 보자.<sup>17)</sup> 구종남(1993)의 판단을 따르면, ‘안 순진하-’의 형태가 문법적으로

17)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안 순진하-’와 ‘\*안 공부하-’가 성립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는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와 동사를 형성하는 접미사로 구분된다. 특히, 동사를 형성하는 접미사 ‘-하-’는

타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화자에 따라 ‘안 순진하-’의 구성을 비문법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고에서는 접미 파생 용언의 문법성을 개별적 용언에 따라 따져 보려는 것이 아니라, ‘안 순진하-’의 형태를 문법적으로 판단기도 하고 비문법적으로 판단하기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하려는 것이다.

부정소 ‘안’이 의존 형태소이며 결합하는 여기가 용언형 어근이라는 본고에 제안을 따르면, ‘안 순진하-’를 문법적이라고 판단할 때와 비문법적이라고 판단할 때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 결과는 (16)과 같다.

(16) 가. 영수는 [안 순진하]-었다.

→ [안(의존 형태소)+ √순진하- (여기: 용언형 어근)]

나. \*영수는 [안 순진]-하-었다.

→ \*[안(의존 형태소)+ √순진(여기: 비용언형 어근)]

(16가)는 화자들이 ‘안 순진하-’의 구성을 문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본고의 제안을 따르면 (16가)가 문법적인 이유는 어간인 ‘순진하-’ 전체를 하나의 용언형 어근인 ‘√순진하-’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 순진하-’의 구성은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이 어기인 용언형 어근 ‘√순진하-’와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문법적으로 적법한 구성이 되는 것이다.

---

허철구(2001), 최형강(2008, 2009)의 지적한 바와 같이 어근과 분리되는 것이 허락되지만,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 ‘-하-’는 어근과 분리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순진하-’는 형용사로 어근 ‘순진’과 접미사 ‘-하-’가 분리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반면, ‘공부하-’는 동사로 어근과 접미사의 분리가 자유롭다. ‘-하-’의 이러한 성격을 토대로 ‘안 순진하-’가 허락되는 것은 ‘순진하-’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 반면, ‘\*안 공부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동사 ‘공부하-’가 그 분리 가능성으로 인해 ‘\*안 공부’로 우선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16나)는 화자들이 ‘\*안 순진하’의 구성을 비문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본고의 제안을 따르면 (16나)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화자들이 용언 어간 ‘순진하’를 비용언형 어근인 ‘√순진’과 접사 ‘-하’의 결합된 구성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안 순진하’의 구성을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과 비용언형 어근인 ‘√순진’이 결합하여 형성된 구성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화자들은 비문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소 ‘안’을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고 부정소 ‘안’과 결합하는 어기를 용언형 어근으로 분석하게 되면, 기존 문법서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약에 대해서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정소 ‘안’은 용언의 어기와 분리될 수 없고, 다수의 용언형 어기와 결합하면서도 모든 용언형 어기와 결합하지 못하는 제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접두사적 성격이 매우 강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어기와의 결합에 있어 형태-의미적으로 매우 심한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인 반면, 부정소 ‘안’은 일반적인 접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기와의 결합에 있어 제약이 심하지 않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미사 ‘-하’와 비교하여 부정소 ‘안’을 접두사로 설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싶다. 접미사 ‘-하’는 어떤 접미사보다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많지만, 그렇다고 모든 어근과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접미사 ‘-하’가 모든 어근과 결합할 수 있다면 이들은 접사가 아닌 어미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국어 문법에서 결합 제약을 비교적 덜 받는 대표적인 접미사로 ‘-하’를 설정할 수 있고, 결합 제약을 비교적 덜 받는 대표적인 접두사로 ‘안’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sup>18)</sup>

18) 본고에서는 부정소 ‘안’의 문법 범주를 접미사 ‘-하’와 대비하여 접두사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바이며, 이 자리를 빌려

##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소 ‘안’의 문법 단위가 단어가 아닌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 형태소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약을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성과(구현정 2008, 이한규 2012 등)를 통해 부정소 ‘안’이 부사 ‘아니’의 준말이지만 현대 국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부정소 ‘안’의 형태-통사적 특징들인 (i)부정소 ‘안’의 통사적 위치, (ii)부정소 ‘안’의 자립성 여부, (iii)부정소 ‘안’의 결합 제약 등이 부정소 ‘안’의 문법 단위가 단어가 아닌 의존 형태소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박정규 2003, 박재희·박정규 2012)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부정소 ‘안’의 의존 형태소로서의 특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접사적 성격을 지닌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은 어기인 용언형 어근과 결합하여 단형 부정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해명하지 못했던 단형 부정문의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제약이 의존 형태소인 부정소 ‘안’과 어기인 용언형 어근이 직접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구종남, 『용언의 단형부정 제약과 형태, 의미, 화용론』, 『한국언어문학』31, 한국언어문학학회, 1993, pp.1-21.
- 구현정, 『“아니, 안 하는게 아니잖아”: 부정 표현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15-3, 담화·인지 언어학회, 2008, pp.1-27.
- 남기심, 『현대국어통사론』, 태학사, 2001.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
- 목정수, 『{좁}의 기능과 문법화』, 『언어학』28, 한국언어학회, 2001, pp.77-100.
- 박상수, 『한국어 부정 요소 “아니하-”와 “아니”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분석』, 『언어과 학연구』58, 한국언어과학회, 2011, pp.71-92.
- 박정규, 『부정 부사 ‘안(아니)’의 접사적 성격에 대하여』, 『국제어문』17, 국제어문학회, 1996, pp.3-28.
- \_\_\_\_\_, 『국어 부정문의 체계적 연구』, 보고서, 2003.
- 박재희·박정규, 『단형 부정문을 형성하는 ‘안’의 문법 범주에 관하여』, 『우리말연구』31, 우리말학회, 2012, pp.111-142.
- 서정수, 『국어구문론연구』, 탑출판사, 1983.
- 안주호·김영란, 『한국어 교실에서의 {네, 아니}의 사용 양상 연구』, 『문법교육』18, 문법교육학회, 2013, pp.147-173.
- 이지영, 『한국어 용언부정문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2008.
- 이한규, 『한국어 담화표지어 ‘아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67, 현대문법학회, 2012, pp.145-171.
- 임홍빈, 『국어 문법의 심층3-어휘 범주의 통사와 의미』, 태학사, 1998.
- 정희창, 『준말의 단어 형성 문제』, 『반교어문연구』21, 반교어문학회, 2006, pp.107-118.
- 최형강, 『파생용언에서의 어근 분리와 부정소 삽입』, 『한국어학』39, 한국어학회, 2008, pp.365-395.
- \_\_\_\_\_, 『형성소와 ‘어근’ 개념의 재고를 통한 ‘어근 분리 현상’의 해석』, 『국어학』56, 국어학회, 2009, pp.33-310.
- 허철규, 『국어의 어기분리 현상과 경계인식』, 『배달말』28-1, 배달말학회, 2001, pp.57-91.
- Adger, D., Core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Ahn, H-D., On the light verb construction in Korean and in Japanese. In H. Hoji (Ed.), Japanese/Korean linguistics V1. CSLI, 1990. pp.221-237.
- Bak, J-H., The light verb construction in Korean. PhD Dissertation, U of Toronto, 2011.
- \_\_\_\_\_, The partitive particle *com* in Korean. In H-M, Sohn et al. (Ed.), Japanese/Korean linguistics V19. CSLI, 2011, pp.267-281.
- Kim, J-B., The grammar of negation. CSLI, 2000.
- Tallerman, M., Understanding Syntax. Routledge,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Grammatical Unit of the Negation Particle ‘an’  
 that Builds the Short-Form Negation Construction  
 - the negation particle ‘an’ as an affix -

Bak, Jae-Hee

The goal of this study enlightened the fact that the grammatical unit of the negation particle ‘an’ in Korean, which builds “short-form negation construction” is not an “independent morpheme” but a “dependent morpheme”. Up until now, previous studies including many grammar textbooks or dictionaries have define ‘an’ as a word and so it belongs to the part-of-speech “adverbs” in Korean.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explain (i)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an’ and (ii)the reason why certain verbs cannot combine with ‘an’ and cannot create short-form negation construction. Thus, this study pointed out the main reason why previous studies cannot explain these two things is that they categorized ‘an’ as an independent word and regarded it as an adverb in Korean. This study intended to exhibit the characteristics of ‘an’ as a dependent morpheme. Firstly, in modern Korean, ‘an’ behaves differently from an adverb ‘ani’ which is regarded as the original form of ‘an’. Secondly, some characteristics of ‘an’ does not match with those of adverbs in Korean. Based on the fact that ‘an’ is an independent morpheme in Korean, this study examined what was the base of ‘an’ and finally found that the base of ‘an’ was “verbal root”. As the fact that ‘an’ is an independent morpheme and its base is a verbal root, the study can explain why many verbs cannot combine with ‘an’ and cannot build the short-form negation construction in Korean.

Key Word : short-form negation, negation particle ‘an’, adverb ‘ani’, dependent morpheme, affix, base, verbal root

박재희

소속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BK21+ 동아시아융합사업단 연구교수

주소 :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600주년 기념관 4층 410B

전화번호 : (02) 760-0892 / 010-3374-9308

전자우편 : jaeheebak@gmail.com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